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1. 6. 11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프랑스 하원, 강화된 「테러방지법」 개정안 가결
 - 6.2 프랑스 하원은 △ 테러 사건 출소자 최대 2년간 감시, △ 온라인 테러 선동 게시물 파악 알고리즘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테러방지법」 개정안을 압도적인 표차(贊 87·反 10)로 가결

미주

- 美 법무부, ISIS 가입 시도 남성 체포
 - 6.1 美 법무부는 지난 5.28 ISIS 가입을 위해 시애틀 공항에서 이집트행 비행기에 탑승 수속 중이던 남성(20, 시애틀 거주)을 체포하였고, 同 남성이 폭력과 극단주의를 찬양*하였다고 발표
 - * 극단주의 웹사이트·SNS 등으로 ISIS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채팅에 적극 참여
- 美 뉴욕市, 아시안 증오범죄 335% 증가 발표
 - 6.4 美 뉴욕시경(NYPD)은 '21.1~5월 발생한 아시아인 대상 증오범죄가 총 87건으로 前年 동기(20건) 대비 335% 증가했으며, 총격사건도 56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(318건) 대비 77.4% 늘었다고 발표
 - * CNN은 아시아인들이 언어장벽·경찰에 대한 불신·이민신분 우려 등으로 범죄 피해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
- 캐나다, 트럭 돌진 운전자 '테러혐의' 적용 검토
 - 6.7 캐나다 경찰은 6.6 온타리오주 런던에서 무슬림 일가족을 향해 고의로 차량돌진 사고(사망4, 부상1)를 내어 검거된 트럭 운전자(20세, 남)에 대해 계획된 증오범죄로 판단하고 '테러 혐의' 적용 여부 검토 中
 - * 범인(범죄 전과 無)의 특정 증오범죄집단과의 연관성이나 공범 여부는 미확인

중 동

- 이라크 대통령,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국제협력 강조
 - 6.6 이라크 대통령은 덴마크 외무장관과 회담에서 “국제사회와 협력해 중동지역과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긴장과 위기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”이라며 테러와의 전쟁 동참을 발표

아 · 태평양

- 아프가니스탄, 주둔 미군 철수 개시와 더불어 탈레반 세력 확대
 - 6.4 아프간 정부는 美軍이 5.1 아프가니스탄에서 공식 철수를 시작 하자 탈레반이 국토 전역에 걸쳐 공격을 강화하고 있어 아프간內 5개 이상의 지구와 수십개의 군사 거점을 잃었다고 발표
 - * 탈레반은 최근 공격은 아프간 정부군의 군사 작전에 대한 방어적 대응이라고 주장
- 외교부, 아프가니스탄 체류 우리국민 20일까지 철수 요청
 - 6.8 외교부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美軍 철수 시작 이후 아프간 정부에 대한 탈레반의 공격이 격화됨에 따라 우리 교민들에게 오는 20일까지 조속 철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
 - * 체류 중인 국민은 소수로 복수국적자로 추정(아프간은 ‘여행금지국가’ 지정, 사증 未발급)

아프리카

- ISIS 수장, 예하지부에 보코하람 지도자 살해 지시
 - 해외 언론은 지난 5.18 보코하람의 지도자 「세카우」가 자폭한 것은 ISIS 수장 「알쿠라이시」의 지시를 받은 ISIS-서아프리카지부가 同人을 살해하려고 하자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주장
 - * 英 가디언은 ISIS가 보코하람의 무차별적 무력행사와 조직팽창을 우려했었다고 분석

파키스탄 탈레반(TTP)*, 카라치 ‘진나 국제공항’ 테러

* Tehrik-i-Taliban Pakistan : 파키스탄 신학생(Taliban) 운동(Tehrik)

- '14.6.8, 23:20경 파키스탄 최대도시 카라치市의 ‘진나 국제공항’에 무장괴한 10여명이 난입후 공격을 자행, 최소 28명이 사망
 - 로켓포와 총기 등으로 중무장한 괴한들은 철조망을 끊고 공항에 잠입한 뒤 귀빈 및 화물 운송 터미널을 공격
 - * 괴한들은 화물기 1대를 방화했으며, 진압부대와 충돌 중 항공기 3대 추가 파손
 - 정부는 군·경찰·공항경비대를 동원해 진압작전을 벌인지 5시간여 만인 익일 04:35 무장괴한에 대한 최종 소탕 완료 발표
- 사건 직후, 파키스탄 탈레반은 이번 공격은 '13.11월 미국의 공격으로 사망한 자신들의 지도자 「하키몰라 메수드」를 위한 보복이라고 주장
- 이에, 파키스탄 정부는 병력 35,000명을 투입하는 대대적인 ‘파키스탄 탈레반’ 소탕작전을 전개해 약 300명의 조직원을 사살

< 파키스탄 탈레반 (TTP) >

- **(결성)** '07. 12 알카에다가 ‘파키스탄의 FATA(부족자치주) 지역 내 군사작전에 대한 저항 및 무장투쟁 강화’를 위해 13개 소규모 무장단체들을 연합하여 결성한 극단주의 테러단체('11.7 UN 지정)
- **(활동지역)** 파키스탄 북서부 부족지역(FATA) 및 아프간 접경지역(쿠나르 지역 등)
- **(활동수법)** 부족지역 내 게릴라戰 및 페샤와르 등 주요도시 폭탄테러 등을 자행, 중앙 집권적인 아프간 탈레반과 달리 각 부족별 조직이 자율적으로 점조직 활동
- **(주요테러)** △'07.12 라왈핀디에서 前파키스탄 총리 암살 △'11.5 페샤와르 국경수비대 대상 자폭테러 △'13.9 페샤와르에서 교회 대상 자폭테러 △'14.6 카라치市 진나국제공항 동시다발 공격 등